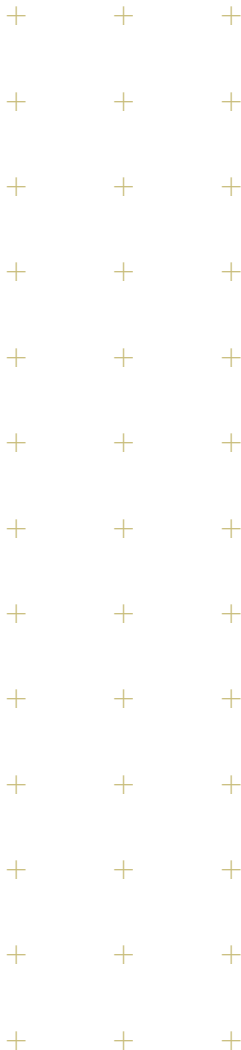


1교 1촌형 체험지원, 도·농 교류 활성화 팜스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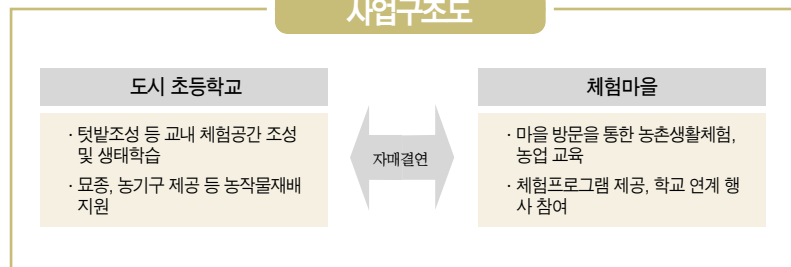
팜스쿨 사업은?

팜스쿨 사업은 도시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배 및 농어촌 현장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1교 1촌형 체험지원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체험마을 간 자매결연을 통해 학교는 텃밭 등 학생들이 농작물재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과과정과 연계한 학습을 진행하고, 현장체험이 필요할 경우 체험마을을 방문하여 농어촌 생활체험, 친환경농업·식생활교육 및 생태 학습 등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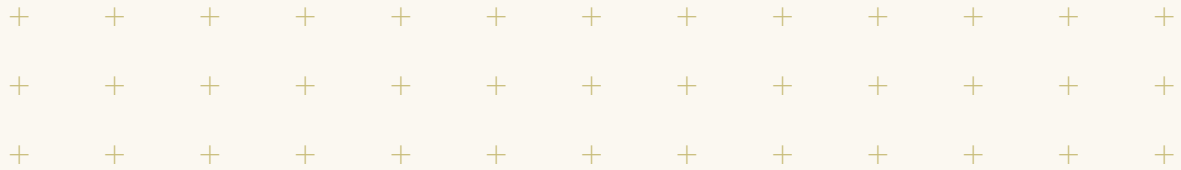
체험마을은 결연을 맺은 학교가 텃밭 등 교내 체험공간을 조성할 때 묘종, 농기구 등 농작물재배 체험에 필요한 자원 외에 농작물 재배 노하우를 지원하며, 학생들이 현장 체험을 위해 마을을 방문할 경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감 있는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구조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나?

학교와 체험마을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시작한 팜스쿨 사업은 2010년에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텃밭, 재배화분



등 교내 체험공간 조성 및 농어촌 현장 체험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학교당 예산지원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체험 중심에서 외연을 확장하여 상호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거래장터 등 학교와 체험마을 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팜스쿨 사업의 성과는?

사업 성과로는 우선 초등학교 학생들이 농작물 재배 및 현장 체험을 통해 농어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농어촌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2011년 팜스쿨 사업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 전후 비교 조사 결과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관심도가 학생은 56%에서 60%로 4%포인트 증가하였고, 학부모는 63%에서 68%로 5%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교사는 83%에서 93%로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제도권 내에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들이 농어업·농어촌이 갖는 교육적 가치를 학생, 학부모에 비해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업·농어촌 체험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학생(82%→82%)과 교사(98%→98%)는 변동이 없었으나, 학부모는 81%에서 87%로 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생·교사 집단에 비해 단순히 이론적 학습보다는 현장체험 학습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성과로는 초등학교와 체험마을 간 상호교류를 통해 농어촌에 활력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마을

주민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농작물 재배방법을 가르치고, 학교와 공동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노력의 결과로 학교의 마을 방문 횟수가 2010년 47회였던 것이 2011년에 126회로 증가하였으며, 학생 참여 수도 2010년 3,868명에서 2011년 5,803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명신초등학교(붕어잡기)



광주 금호초등학교(새끼꼬기)

팜스쿨 사업의 개선 과제와 2012년 추진 방향은?

2012년 3월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주말에 농어촌에서 다양한 체험과 견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

+

교로 확대하면
의 안정적 정착
통문화자원·국
프로그램 운영을 기
프로그램 구현에 초

는 교구·교재
교사들이 농작
한 지식이 부족
습을 진행하는

을 덜어 주고, 현
어질 수 있도록
가 대상 학교의
학교와 체
을 의무
개발
간

와
일
산어촌을 활용하기
가 되고 어린이 노
년부터
대하여
원하는
기준
4.9%